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둥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318

청소년NEWS

미래의 동량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는다



1318.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이다.

“13~18세의 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이며,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지역의 미래다”

방학동안 나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요

고성군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캠프 운영 ... 진로적성검사 · 항공박물관 관람 · 꿈 리스트 작성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나를 발견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체험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진로캠프는 학생들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여가시간의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대한 탐색 능력 부족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청소년 진로체험캠프는 8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1일차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진로적성검사, 키자니아 직업박물관 관람을 비롯해 ‘꿈을 향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직업군 모니터링 및 자유롭게 직업군 찾아보기 행사가 진행된다.

2일차에서는 항공대 항공박물관을 방문해 항공체험 및 관람이

이뤄지며, ‘변화된 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나만의 꿈 리스트 작성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캠프로 운영된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를 발견하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며 “진로를 슬기롭게 생각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해 열린 진로체험프로그램 모습.

세계 각국 청소년 우정 나눠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고성 개최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재 김정숙)이 주최하는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박7일간 고성군 토성에 위치한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30여개국 청소년 10,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에서 참가한 대원들이 봉사대해변에서 바다레프팅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제야영대회는 세계걸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해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야영생활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소중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시작, 성장, 공유를 의미하는 ‘Plant! Grow! Share!’라는 주제로 국제의 밤, 국제리더의 밤, 친구야(대별친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각국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져 청정 고성의 대자연속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의 대축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구촌 빈곤 및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 홍보관을 운영하며 걸스카우트 65년 발자취, 역대국제야

영의 이모저모 등을 담은 걸스카우트 홍보관 및 100주년기념 홍보관, 참가회원국의 문화,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전시관을 운영했다.

또 천연염색 및 에너지 다이어트, 농촌체험 등 에코 그린활동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항공종사자, 마임아티스트 등의 과정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사물놀이, 다례, 전래놀이, 세계로 떠나는 여행 등 글로벌 활동은 물론 고공활강, 챌린지밸리, 숲체험 등 벤처활동과 씨래프팅, 해양드림 어드벤처 등 5개 과정활동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박승근 기자

“무더위 영어공부하며 이겨내요”

고성중 원어민활용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고성중학교(교장 함영세)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지역적 특성상 어학과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의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해 여름방학 중 ‘원어민활용 단기집중 영어캠프’를 운영했다.

영어캠프를 경험해보지 못한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은 영어회화 동아리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학생들의 학교소속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한국어 영어교사와 함께 대부분의 영어를 사용해 생활영어 익히기 및

지문 채취하기, 탐정놀이, 외국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또 캠프 마지막날은 캠프 사진자료를 편집해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설문조사, 소감문 등을 작성하며 한주간의 캠프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영어캠프에 참가한 고성중 이장원학생(3년)은 “비록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어캠프에 참가해 즐기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성중학교는 이번 행사와 같은 단기집중 영어캠프를 겨울방학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근 기자